

# 相對的過剩人口의 生成 및 存在形態\*

朴 宗 洙\*\*

## 〈 目 次 〉

- |                     |                        |
|---------------------|------------------------|
| I. 序 論              | 3. 停滯的 過剩人口            |
| II. 相對的 過剩人口의 形成原理  | 4. 被救恤 貧民              |
| III. 相對的 過剩人口의 存在形態 | 5. 相對的 過剩人口의 現代的 存在 形態 |
| 1. 流動的 過剩人口         |                        |
| 2. 潛在的 過剩人口         | IV. 要約 및 結論            |

## I. 序 論

오늘날 대부분의 資本主義國家에 있어 國家獨占資本은 전반적인 국민생활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또 이를 배경으로 상대적과잉인구 (relative Übervölkerung) 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거대한 노동력 저수지를 형성해가고 있다. 국가독점자본은 新生産分野의 開拓과 더불어 生産財生産部門 (I부분)은 물론 消費財生産部門 (II부분)에 까지 진출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消費를 강요하며<sup>1)</sup> 또한 이제까지는 가족구성원에 의해 주로 담당하여져 오던 가정내 서비스노동이나 교육, 의료, 복지부문까지 그 영업분야가 확장되고 소위 獨占資本의 새로운 利潤生産領域으로 전화되었다. 한편 銀行이나 各種 保險會社들은 종래의 기본적인 업무외에도 각종 새로운 金融商品의 개발을 통해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여러가지 유익한 비판과 조언을 해주신 慶尙大學校 장상환·김삼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류는 필자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 慶尙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助敎授

1)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8년 10월 상공부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대기업참여가 금지된 두부, 가방, 국수, 골판지제조 등 127개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현대·삼성·대우·력키금성 등 47개 재벌계열사를 포함한 242개 대기업이 침범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에는 지난 1984년 205개의 고유업종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 재벌기업의 고유업종 참여실태는 다음과 같다.

△현대 (10개 계열사: 두부, 서가, 실험대, 책걸상 등 28개 업종) △삼성 (9개 계열사: 가방·국수·옥수수기름·핸드백·골판지 등 20개 업종) △력키금성 (9개 계열사: 팜택제, 골판지, 손복시계케이스 등 23개 업종) (한겨레신문, 1988. 10. 11에서 인용)

근로자에게에 대한 金融的支配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독점자본의 영리 활동범위는 생산의 영역으로 부터 국민의 일상생활과정을 통틀은 이른바 가계에 있어서의 勞動力再生産 全領域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가계소득과 가계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며 생계에 곤란을 느낀 노동자세대의 多就業化가 촉진되는 것이다.<sup>2)</sup>

한편 國家獨占資本은 그 자체의 再生産機構내에 農業部門을 수용해 가면서 農工間 不等價交換과 銀行資本에 의한 金融的支配 및 國家主導下의 外國産 農産物輸入政策등을 배경으로 농업부분을 그들의 獨占利潤의 원천으로 변형시켜왔다. 　　이에따라 급격히 분해된 농민층은 대규모로 도시에 유입되면서 거대한 노동력집전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相對的過剩人口의 또다른 배경을 이룬다.

이같은 오늘날 자본주의 축적과정의 지렛대가 되어온 상대적과잉인구의 形成原理와 그 存在形態를 구명해내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李原德 (1982)<sup>3)</sup> 金炯基 (1985<sup>4)</sup> 1987<sup>5)</sup> 1988<sup>6)</sup>),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sup>7)</sup> 황한식 (1985)<sup>8)</sup> 박덕제 (1987)<sup>9)</sup>, 박종수 (1987)<sup>10)</sup> 등에서 상대적과잉인구론적 접근을 통한 分析事例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이들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 서 相對的過剩人口에 대한 科學的概念的 定立 및 그 존재원리에 대한 具體的論究가 없이 막연한 개념상의 이식을 통해 국내실업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을 전개함에 있어 특히, 기존연구가 가지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

- 2) 永山利和·伍賀一道, 「現代日本の 相對的過剩人口と獨占資本の 雇傭政策」, 『日本資本主義と 勞働者階級』, 大月書店, 1983, pp.141~144.
- 3) 李原德, 「相對的 過剩人口에 관한 研究」, 『經商論集』, 제4권제1호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82.
- 4) 金炯基, 「노동자계급의 성장 및 내부구성의 변화와 주체형성」, 박헌채, 김형기의,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1985.
- 5) \_\_\_\_\_, 「자본축적과 임금노동자의 상태-대구지역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창간호, 지방사회연구회, 1987.
- 6) \_\_\_\_\_, 『韓國의 獨占資本과 賃勞動- 隸屬的獨占資本主義下 賃勞動의 理論과 現狀分析-』, 까치, 1988.
- 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실업문제의 인식- 한국의 상대적과잉인구와 고용문제-』, 민중사, 1987.
- 8) 황한식, 「한국노동시장구조」, 박헌채, 김형기의,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1985.
- 9) 박덕제, 「한국노동문제의 현상과 구조」, 박헌채의, 『한국경제론』, 까치, 1987.
- 10) 박종수, 「한국의 경기순환과 상대적과잉인구」, 『論文集(人文·社會系篇)』 제26집제2호, 慶尙大學校, 1987.

해서 노력할 것이다. 본고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천박성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를 내놓게 된 것은 국내노동시장의 분석에 있어 매우 적합한 틀을 제시해주는 相對的過剩人口論에 대한 우리나라대로의 이론적 토대의 정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둔다.

## II. 相對的過剩人口의 形成原理

상대적과잉인구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전개는 당연히 마르크스의 『자본론』<sup>11)</sup> 제 1권 7편 23장으로 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23장 3절에서 ‘상대적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생산’<sup>12)</sup>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본축적은 최초에는 오로지 자본의 양적 확대로서만 나타났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자삽입)] 자본구성의 끊임없는 질적변동을 수반하면서 [곧 자본의 가변성분을 희생으로한 불변성분의 끊임없는 증대를 수반하면서] 행해진다.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대응하는 노동생산력의 발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변동은 축적의 진전 또는 사회적

11) 앞으로 이 글에서 인용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별다른 설명이 없는 한 다음의 책을 사용하기로 한다. K.Marx, Das Kapital, 『자본』 1-1,2,3 김영민역, 이론과실천사, 1987.

12) 여기서 상대적과잉인구 (relative Übervolkerung)와 산업예비군 (industrielle Reservearmee)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Mark는 자본론 제 1권 23장 3절에서

‘相對的過剩人口 또는 産業豫備軍의 누진적생산’이라는 제목하에 “이 과잉인구는 자본의 변동하는 증식요구를 위해서 현실적 인구증가의 제약에 상관없이 언제나 착취할 수 있는 人間材料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K.Mark, (『자본』, 김영민역, p.715)라고 서술하고 있는 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적과잉인구’와 ‘산업예비군’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비판적으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 상대적과잉인구가 그대로 산업예비군과 합치하는 개념이라고 보는것은 매우 경솔하다. 왜냐하면 前者는 舊資本構成・舊技術構成下에서 취업하고 있다가 구축되어진 노동자들인 반면, 後者는 새로운 자본구성 및 기술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게 될 ‘豫備軍’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勞動力이 수요되는 것은 白紙狀態의 미숙련 혹은 단순노동력이 아닌 일정한 숙련도와 복잡도를 가진 具體的 勞動力이므로 舊技術構成에나 맞았던 저급화된 노동력은 職業再訓練등을 거치지 않고는 소위 ‘豫備軍’으로서도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과잉인구란 어디까지나 産業豫備軍의 人間材料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 및 기술구성하에서 과거보다도 훨씬 단순화된 노동이 요구되어 별다른 직업훈련이 필요없게 된다면, 대부분의 相對的過剩人口는 별탈없이 産業豫備軍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美崎 皓, 『現代勞働市場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79, p.55 및 日高普, 『資本蓄積と景氣循環』, 法定大學出版局, 1987, pp.72~78)

부의 증대와 단순히 같은 보조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 왜냐하면 단순한 축적 [ 곧 총자본의 절대적 확대 ]은 총자본의 개별적 요소들의 집중을 수반하기 때문이고 또한 추가자본의 기술적변혁은 본디자본의 기술적변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그 가변성분의 규모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총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이지, …… 총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총자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또 이 크기의 정도에 따라 가속적·누진적으로 감소한다.”<sup>13)</sup>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축적은 —그 힘과 규모에 비례해서— 끊임없이 상대적인, 자본의 평균적증식욕구를 초과하는, 과잉된 추가된 노동자인구, 즉 상대적과잉인구를 낳는다… 결국 노동자인구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본의 축적에 따라서 自身을 相對的過剩으로 만드는 수단을 점차 대량으로 창출해 낸다. 이것이 바로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 고유한 人口法則인 것이다.”<sup>14)</sup>

이와같은 『자본론』상의 相對的過剩人口 形成原理에 관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일찌기 오펜하이머 ( F. Oppenheimer ) 의 마르크스비판 이래<sup>15)</sup> 일본 및 구미의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통일된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 논쟁의 초점은 ‘相對的過剩人口의 形成에 관해서, 可變資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더라도 絶對적으로 증가한다면 相對的過剩人口는 형성되는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sup>16)</sup> 요컨대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가 가변자본의 상대적감소 따라서 노동자수의 상대적감소를 필연적으로 야기시킨다는 점은 명확하다해도 투하자본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可變資本量·雇傭勞動者數가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부연하면, 가변자본의 감소에 의한 상대적과잉인구의 누진적형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資本蓄積過程에 있어 有機的構成의 高度化 및 資本의 量的擴大라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가지 요인이 끊임없이 錯綜되어 진행되는 資本蓄積過程에서 勞動者의 驅逐= 相對的過剩人口形成의 必然性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과연 이

13) K.Marx, 『자본』 김영민역, pp.712~713.

14) 위의책, pp.713~715.

15) Franz, Oppenheimer, Das Grundgesetz der Marxschen Gesellschaftslehre, Georg Reimer, Berlin, 1903, 美崎皓, 앞의책, p.41에서 재인용.

16) 加藤佑治, 『現代日本における不安定就業労働者』(上), 御茶の水書房, 1984, p.5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오펜하이머」는 「마르크스」의 상대적과잉인구형성의 명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總資本(k)에 비해서 ‘就職口’(s)가 감소한다면, 노동능력과 노동의지를 지닌 프롤레타리아의 숫자(p)에 비해서 就職口(s)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 … 즉 이같은 명제는  $s:k$ 가 감소하면  $s:p$ 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社會的可變資本을  $v$ , 임금을  $l$ 이라 놓으면  $v=l \cdot s$ 로 표현될 수 있다. 이제 임금을 당분간 불변이라 가정하면 앞의 명제는,  $v:k$ 가 감소한다면  $v:p$ 도 또한 감소한다고 해석된다.”<sup>18)</sup>

「오펜하이머」는 이어서 상기와 같은 「마르크스」의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總資本 또는 可變資本과 프롤레타리아 수간에 직접적인 의존관계가 있음을 논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가 만약  $v$ 의 증대는 항상  $p$ 의 증대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면 그의 명제는 완성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를 論證하지 못했다. …… 따라서 相對的過剩人口의 果進的生成理論은 成立될 수 없다”고<sup>19)</sup> 결론지었다. 이와같은 資本總量 또는 可變資本과 勞動者人口라는 相互獨立된 두가지 요인의 관련여하에 대한 문제는 「오펜하이머」이래 「마르크스」비판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다.<sup>20)</sup>

그러나 이같은 「오펜하이머」의 비판은 「마르크스」의 상대적과잉인구론이 입각하고 있는 長期趨勢의分析의 특징을 간과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사 일시적으로는 可變資本의 相對的減少 및 絕對的增加가 가능하다고 해도, 전체적, 장기적 傾向으로서의 勞動需要의 절대적감소 및 상대적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성의 필연성”(방점은 필자)을<sup>21)</sup>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마르크스」의 상대적과잉인구론은 —

17) 井村喜代子, 『恐慌・産業循環の理論』, 有斐閣, 1973, p.340.

18) Franz Openheimer, Ebenda, s.34, 美崎皓, 앞의책, p.31에서 재인용. 한편 여기서  $v:k$ 의 감소는 자본의 유기적구성의 고도화를 나타내며,  $v:p$ 의 감소는 프롤레타리아수에 비한 就職口의 상대적감소를 의미한다.

19) Franz Openheimer, Ebenda, s.42. 美崎皓, 앞의책, p.31에서 재인용.

20) 美崎皓, 앞의책, p.32. 예컨대 態谷尙夫도, 『資本主義經濟と雇傭』(日本評論新社, 1957)에서, “「마르크스」의 명제는 勞動力供給의 長期傾向에 관한 ‘특정한가설’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성립될 수 없다”고 논술하고 있다.

井村喜代子, 앞의책, p.346에서 재인용.

21) 眞實一男, 『機械と失業—リカド, 機械論研究』理論社, 1959, p.193.

定한 歷史的發展條件을 전제하고 있는것임을 유념해야 한다.<sup>22)</sup>

「마르크스」는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와 더불어 총자본의 증가에 의한 可變資本 및 雇傭勞動力數의 절대적증가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絕對的增加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자본의 양적 확대는 모든 분야에서 항상 실현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기적구성의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가변자본 및 고용노동력수의 절대적증대를 위해서는 누증하는 자본축적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누진적자본축적 그 자체는 또한 生産力向上 및 有機的構成의 高度化를 촉진시키는 源泉이 됨을 주목해야 한다. 또 누진적자본축적은 資本制生産 고유의 산업순환 및 기타 경제사회적 제약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勞動力驅逐의 작용은 어떤 순환국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다른 국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sup>23)</sup>

마르크스는 『자본론』 23장 3절에서, “총자본의 증대에 따라 그 가변성분(곧 총자본에 합체되는 노동력)도 증가하지만 그 비율은 감소한다.”<sup>24)</sup> 는 지적을 통해 總資本의 증가에 의한 雇傭勞働者數의 절대적증가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과잉인구의 누진적 생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社會的總資本을 고찰하면 그 축적운동은 주기적인 변동을 불러 일으키며, 때로는 이 운동의 계기들이 여러 생산영역에 동시에 배분된다. 몇몇 영역에서는 資本構成의 변동이 자본의 절대적크기의 증가없이 단순한 집적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다른영역에서는 자본의 절대적인 증가가 그 가변성분 또는 그것에 의해서 흡수되는 노동력의 절대적감소와 결부되어 있다. 또 다른 영역에서는 자본이 때로는 그 주어진 기술적기초 위에서 계속 증대하고 그 증대에 비례하여 추가적노동력을 흡인하며 때로는 유기적변동이 일어나서 자본의 가변성분이 수축한다. 어떤 영역에서나 가변자본 부분의 증대(사용노동자수의 증대)는 늘 격렬한 동요와 일시적인 과잉인구생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sup>25)</sup>

이와같이 資本蓄積의 不均等한 展開過程에서 相對的過剩人口形成의 現實的必然性을 구하는 견해는 林直道(1953)<sup>26)</sup> 에 의해 정교화되었다. 林直道는 資本蓄積 그 자체에

22) 玉垣良典, 「マルクス 蓄積論に関する - 考察 - 資本制蓄積の一般法則と現代資本主義 - 」 『專修經濟學論集』 第7號, 1969. 井村喜代子, 위의 책, p.346에서 재인용.

23) 井村喜代子, 위의 책, p. 341.

24) K.Marx. 앞의 책, p.713.

25) 위의 책, pp. 713~714.

26) 林直道, 「相對的過剩人口について」, 大阪市立大 『研究と資料』 第2號, 美崎 皓, 앞의 책 p.42에서 재인용.

내재하는 두요인, 즉 資本總額의 증대와 可變資本의 상대적감소를 노동력의 吸引( attraction )과 反撥( repulsion )의 근원으로 보고 이 상반되는 양작용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으로 부터 상대적과잉인구의 현실적 필연성을 구하고 있다. 즉 “축적에 내장되어 있는 이같은 대립적인 두개의 경향은 완전히 중화·상쇄될 수 없으며”<sup>27)</sup> 생산부문간 기업간의 불균등발전 및 산업순환 각 국면간의 불균등발전이라는 “2개의 경로”를 통해서 노동력의 반발과 흡인이 동시에 발현되며 또한 순환적발전의 서로다른 국면간에서 상대적과잉인구가 현실화된다고 파악한다.<sup>28)</sup>

한편, 여기서 이와 관련된 또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산업순환의 과정에서 反撥된 노동력과 吸引된 노동력간의 相互關係”이다. 이에관해 「고트하일」( Fred, M. Gottheil )은 “(有機的構成의 高度化에 따라) 舊資本의 勞動需要量은 감소되며이에따라 과잉노동공급, 즉 상대적과잉인구가 창출되는 반면, 機械化에 의해 증대된 이윤을 기초로한 새로운 자본축적은 또다른 새로운 노동을 수요하게 된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른다면 生産技術에 의해 反撥된 노동자수가 資本蓄積에 의해 수요되는 노동자수를 항상 초과함으로써, 資本主義下의 상대적과잉인구 形成이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모델에서는 이것이 논증되지 않았다”(방점은 필자)<sup>29)</sup>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고트하일」은 여기서, 반발되는 노동력상품과 흡인되는 노동력상품간의 질적인 차이를 전혀 무시한채 단순한 양적인 비교를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제 노동시장에 있어 신규노동자와 퇴직노동자를 별도로 치면, 구축된 노동자가 흡인된 노동자를 초과한다는 것은 就業勞動者의 絶對的減少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상대적과잉인구란 就業勞動者數의 絶對的増加 속에서 形成된다. 즉 반발된 노동자수가 흡인된 노동자수 보다 설령 적더라도 상대적과잉인구는 형성되는 것이다.<sup>30)</sup>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매매는 특정의 具體的有用勞動의 수행을 통해서 이뤄진다. 유기적구성고도화에 따른 技術的構成의 諸變化에 대응하여 불필요한 노동력은 뱉어내어지고 필요한 노동력은 빨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노동력상품은 질적으로 같을 수가

27) 林直道, 「相對的過剩人口について」, 大阪市立大「研究と資料」第2號, 美崎 皓, 앞의책 27) 위의 책, p. 42.

28) 위의책, pp. 35~36.

29) Fred M., Gottheil, Marx's Economic Prediction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6. p. 169. 美崎 皓

30) 위의책, p. 37.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트하일」流의 노동력에 대한 同一平面上的 量的比較는, “마치 청과물시장에서 호박의 갯수와 바나나의 갯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sup>31)</sup>한 것이다. 주 12)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자본구성의 고도화에 의해 반발된 노동력이 속하는 시장과, 자본총량의 증대에 의해 새롭게 흡인된 노동력시장은 각기 별개의 시장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단 튕겨져나온 노동력이 다시금 흡인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며 설령 흡인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저급한 단순노동시장으로 전락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阿部照男<sup>32)</sup> 과 富塚良三<sup>33)</sup>은 설사, 구축된 노동자수가 흡인된 노동자수보다 적게되어 상대적과잉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취업노동자가 많아진 만큼의 活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 및 유기적구성의 고도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취업노동자의 증대규모를 상회하는 생산의 확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결국 과잉생산상태가 되고 이는 다시 次期の 恐慌을 유발시킴으로써 증대된 규모의 구축된 노동자, 즉 상대적과잉인구가 발생한다는 소위 마르크스의 「複線回歸的 論理構成」<sup>34)</sup>을 통해 상대적과잉인구의 누적적생성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 반발된 勞動力과 吸引된 勞動力間에 존재하는 質的差異를 간과함으로써 「고트하일」流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논의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相對的過剩人口는 단순한 顯在的失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며 이는 각 산업영역에서 여러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독점자본주의 기구를 통한 급격한 자본축적은 국가주도하의 積極的勞動力政策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바 이는 한 국가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상대적과잉인구를 자본의 증식욕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人間材料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산업예비군 창출정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sup>35)</sup> 요컨대 오늘날에 있어 機械制大工業의 本性은 舊熟練을 해체하고 單純勞働分野를 확대하는 것에 의해 “勞働의 轉換, 機能의 流動, 勞働者의 全面的 可動性”<sup>36)</sup>을 증대시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1) 美崎 皓, 앞의책, p.37.

32) 阿部照男, 「産業豫備軍の理論の仕方について」『商學論叢』第10卷1,2,3 合併號, 1968. 9.

33) 富塚良三, 『蓄積論研究』未來社, 1965.

34) 美崎 皓, 위의책, p.43.

35) 金炯基(1988)도 “적극적노동력정책은 실업자구제대책 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산업예비군 창출정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金炯基, 앞의책, p.43의 註. 참조)

36) 美崎 皓, 위의책, p.40.



### Ⅲ. 相對的過剩人口의 存在形態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 1권 제 7편 23장 4절에서, ‘상대적과잉인구의 여러존재 형태’ -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과잉인구는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어떤 노동자라도 그가 半失業狀態에 있거나 또는 完全失業狀態에 있는 기간에는 상대적과잉인구에 속한다. 산업순환에서 상대적과잉인구는 때로는 恐慌期에 급격히 나타나고, 때로는 不況期에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산업순환의 局面轉換에 의해 그것에 각인되는 거대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태들을 도외시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3개의 형태, 즉 流動的·潛在的·停滯的形態를 갖는다. … (또한) 상대적과잉인구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被救恤貧民의 영역이다.”<sup>37)</sup>

이와같이 「마르크스」는 상대적과잉인구의 존재형태를 周期的인 것과 恒常的인 것으로 분류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周期的인 형태는 공황기나 불황기에 恒常的인 세 형태가 합류되어 顯在化되는 문자 그대로의 일시적인 상대적과잉인구를 나타내는 반면, 恒常的形態, 즉 ① 資本構成의 高度化가 진행되는 근대산업의 중심에서 反撥되거나 혹은 單純勞動市場에 다시 吸引되거나 하는 流動的過剩人口 ②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潛在的過剩人口 ③ 家內勞動을 중심으로 하면서 流動的, 潛在的過剩人口로부터 보충되어지는 停滯的過剩人口 등의 규정은 각각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生産手段의 性格, 資本의 技術的構成 및 有機的構成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이는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相對的過剩人口形成의 論理와 직결되는 것이다.<sup>38)</sup>

#### 1. 流動的 過剩人口 (fließende Übervolkerung)

“근대공업의 중심—공장, 매뉴팩처어, 제련소, 광산등—에서 노동자는 때로는 구축되고 때로는 보다 큰 규모로 다시 흡수되어, 취업자의 수는 생산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늘 감소하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대체로 증가한다. 이 경우에 과잉인구는 流動的形態 (flüssige form)로 존재한다. (괄호안은 필자가 삽입)”.<sup>39)</sup> 이

37) K.Marx, 앞의책, p.725 및 pp.727~728.

38) 美崎 皓, 앞의책, p.57.

39) K.Marx, 위의책, p.725.

와 관련하여 大島清<sup>40)</sup>은 “工場이나 鑛山の 職장을 流出入하면서 半就業 혹은 完全 失業의 상태에 있는자”를 流動的過剩人口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충분한 견해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노동자가 경기의 상승 또는 하강에 따라 자본에 의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지면서”<sup>41)</sup> 近代的産業의 中心에서 職장을 流出入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同一勞動力이 同一勞動市場을 流出入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流出되는 勞動者는 舊熟練의 解體나 老巧로 인해 反撥되는 것이며<sup>42)</sup> 이들중 일부는 資本의 새로운 구성하에서 확대된, 보다 낮은 등급의 單純勞動市場으로 편입되어지며 거기서 부인노동력이나 미성년노동력과 합류되고, 또 다른 일부는 停滯的過剩人口의 대열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이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기존의 생산부문에 흡인되는 노동력의 주류는 반발된 노동력이 아니라 젊고 싱싱한 신규노동력이다.<sup>43)</sup>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다.

“노동자수의 자연적증가가 자본의 축적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도 동시에 그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資本의 運動 自體가 갖는 矛盾의 하나이다. 자본은 보다 많은 年少勞動力을 필요로 하는 반면 成年男子勞動者는 그다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에 못지않는 또 하나의 모순은 分業에 의해 일정한 사업부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실직하게 된 수천명의 직공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직공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부분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요소가 급격히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팽창시킬 하나의 형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勞動者世代的 急速한 交替가 일어난다.”<sup>44)</sup> (방점은 필자)

40) 大島清, 「資本主義の人口法則」, 東畑精一編, 『農村過剩人口論』 日本評論新社, 1960, p.11.

41) 大河內一男, 「産業豫備軍의 理論」, 岸本英太郎編, 『資本主義と失業』, 日本評論新社, 1957, p.18., 李原德, 앞의 논문, p.5에서 재인용.

42) 즉 “현실에서 生産手段은 生産手段一般  $P_m$ 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P_{m1}, P_{m2}, P_{m3} \dots P_{mn}$ 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노동력도 이것에 대응하여  $A_1, A_2, \dots A_n$ 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예들들어 I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의 생산수단이 도입되어  $P_{m1a}$ 에서  $P_{m1b}$ 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에 대응하여 수요되는 노동력도 당연히  $A_{1a}$ 가 아니라  $A_{1b}$ 이고  $A_{1a}$ 는 반발되어진다. 바로 이렇게 반발된 노동력은 다시 동일직장에 흡인되지 않고 과잉인구의 대열로 끼어들거나 보다 낮은 등급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吉田寬一編, 「勞動市場의 展開と農民層分解」 農山漁村文化協會, 1974, p.26, 李原德, 위의 논문 p.5에서 재인용.

43) 美崎 皓, 앞의 책, p.45.

한편 小林謙一은 流動的過剩人口를 “다시는 ‘近代産業의 中心’에 흡수되지 못하는 부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치 않다. 왜냐하면 근대산업의 노동시장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複雜·單純勞動市場이 重疊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된 舊熟練勞動者도 單純勞動市場에로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小林謙一, 『就業構造と農村過剩人口』, 御茶の水書房, 1961. p.16. 美崎 皓, 앞의 책, p.45에서 재인용

44) K.Marx, 앞의 책, pp.725~726.

## 2. 潛在的過剩人口( latente übertölkering )

“資本主義的生產이 農業을 점령하자마자, 또는 그 점령하는 정도에 상응하여 농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농촌노동인구에 대한 수요는 절대적으로 감소하지만 여기에서는 농업이외의 산업에서와는 달리 노동자인구의 배출이 보다 큰 흡인에 의해 보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농촌인구의 일부분은 계속 도시 프롤레타리아트 또는 매뉴팩처어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하려하고 이러한 轉化에 유리한 상황들을 기다리게 되는바”<sup>45)</sup> 「마르크스」는 이들 과잉인구를 潛在的過剩人口로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과잉인구의 범주설정에 대해서 美崎 皓는, “농민계층은 일부 上層農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농업소득이 도시노동자의 임금소득보다 낮고, 자본주의 대발전기에 있어 자본의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한 이들은 농민 그 자체로서 모두 상대적과잉인구이다”<sup>46)</sup> 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潛在的過剩人口의 형성을 農業部門에 있어서 자본제생산이 성립된 후에 나타난 자본축적의 결과로서 해석하고 있다.<sup>47)</sup> 아울러 相對的過剩人口의 존재형태를 파악하는 경우 단순히 실업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자나 실업자를 연결하는 경제적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本村隆之의 견해<sup>48)</sup> 에 동조하면서 “資本에 의한 勞動의 直接的包攝, 즉 農業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경영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배경에서 相對的過剩人口로 기능하고 있는 現實的 小農勞動力을 논외로 방출해서는 안된다”<sup>49)</sup> 고 주장한다. 또한 美崎 皓는 資本에 의한 노동의 포섭이라는 구체적·실체적 관계가 勞動研究의 中心課題이며 勞動問題의 中心지임에는 틀림없으나 國家獨占資本主義時期에 있어서의 노동문제분석은 이에 그치지 말고 상품시장, 노동시장 및 자본축적정책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資本에 의한 農民勞動의 間接的包攝도 임노동플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면서<sup>50)</sup> ① 農工間生産力不均等發展에 의한 일반적 소득격차의 형성 ② 저농산물가격, 농업부분의 노동력가치저하 및 저노임 ③ 화학비료나 대형기계의 소생산농업으로의 주입(자본제상품의 價値實現), ④ 국

45) 위의책, p.726.

46) 美崎 皓, 앞의책, p.21 및 pp.133~134.

47) 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적축적의 일반적법칙의 예해’에서 특히 “分割地制度로 인해 발생한 농촌프롤레타리아”와 “자본주의적 생산이 농업에 침입함으로써 과잉화된 농촌인구”를 구분하고 있다. (K.Marx, 앞의책, pp.733~799 참조)

48) 本村隆之, 「相對的過剩人口의 存在形態의 理論的 성격 - 形態規定의 現實的·理論的根據의 檢討」, 『島根大學經濟科學論集』第3號, 1977, p.47 및 美崎 皓, 앞의책, p.25.

49) 美崎 皓, 앞의책, p.25.

50) 위의책, pp. 24~25.

가독점자본주의의 土地占有的規制, 小土地所有의 制限 ⑤ 勞動力貯水池의 조직화정책등은 소생산농업이 資本蓄積機構에로의 間接的包攝을 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상층농을 제외한 모든 中小農民層을 잠재적과잉인구로 해석하고 있는바<sup>51)</sup> 필자는 이와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한다. 다만 각나라에 있어 그 포섭정도는 각기 상이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잠재적과잉인구 범주의 설정에 있어서는 실제 농민층의 土地所有와 경영 규모 및 농촌내부에 있어 經濟的支配나 被支配에 따른 세심한 판단이 추가로 요구됨은 물론이다.<sup>52)</sup>

그렇다면 資本主義 國家에서 존재하는 農村의 過剩人口는 왜 潛在的인가? 이에 대해서 栗原百壽<sup>53)</sup>나 소련연방과학원의 『經濟學教課書』<sup>54)</sup>에서는 이를 소생산농민의 잔존과 결부시켜서 “小農民이 자기자신의 小經營을 유지하면서 獨立된 經營主로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相對的過剩人口의 形成을 해석할 때는 “前資本主義的 諸形態의 驅逐” 혹은 “農民分解의 最終的形態”로 규정하면서 그 潛在性을 해명하는 단계에 들어오면 갑자기 “小農民의 殘存”을 들고 나오는 논리적모순을 보인다. 美崎 皓는 이에 대해서 “자본축적에 따른 勞動力需要의 감소로 인해 農村에서 과잉화된 노동력이 農業外로 流出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非農業部門에서는 本來的으로 不熟練勞動力으로 될 수밖에 없는 農業勞動力은 그列의 最後尾에 위치치워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最底邊勞動市場에 흡수되는 상황으로 부터 潛在性의 原因이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전적으로 옳다. 요컨대 農村過剩人口가 잠재적인 이

51) 岩崎徹은 이같은 美崎의 주장에 대해서 “美崎는 論理的으로는 소농을 상대적과잉인구로 부터 분리하면서 현실의 소농민의 분해를 産業豫備軍의 補充으로서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논리와 현실의 완전한 절단이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小農을 적극적인 논리틀안으로 영합시켜 현실에 있어 자본축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이 옳다”고 비판하고 있다. (岩崎徹, 「相對的 過剩人口 法則と 小農に關する - 考察」, 『東北大學 農學研究所報告』 第27卷1號 1975, p.50.

52) 이와 관련하여, 井上和衛(1971)는 자본주의발전과 더불어, 일어나는 도시의 팽창에 의한, 大都市近郊의 農民所有土地의 地價騰貴現象에 의해 자극된 소위 “資產所有로서의 土地所有의 意義가 높아짐에 따라 (비록) 농민층분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압도적다수의 농민이 프롤레타리아화 되는데 있지만, 일면에서는 小브르조아적 요소를 가지면서 전개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資產的土地所有도 역시 農村分解의 促進劑임은 물론이다. (井上和衛, 「大都市近郊における 農業農民の 諸相」, 井野隆一, 輝峻衆三, 重富健一, 『國家 獨占資本主義と 農業』(下), 1971, p.460

53) 栗原百壽, 「農業問題入門」, 有斐閣, 1955.

54) ソ連邦科學院經研 『經濟學教課書』, I, 第4版, 合同出版, p. 209, 美崎 皓, 앞의책, p.47 에서 개인용.

55) 美崎 皓, 위의책, p. 48.

유는, 농촌노동력이 非農業部門에서 취업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일단 非農部門의 流動의 過剩人口나 停滯的過剩人口가 어느정도 흡수되어 “排水溝가 예외적으로 넓게 열렸을 때” 56) 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며, 이들은 그때까지 농촌에서 그 기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노동자는 임금의 最低限까지 압박되며 한쪽발은 언제나 被救恤이라는 수렁에 빠져있게” 57) 되는 것이다. 58)

### 3. 停滯的過剩人口 (Stockende Übervölkerung)

“相對的過剩人口의 세번째 부류인 停滯的 過剩人口는 勞動者現役軍의 일부를 이루고 있지만, 그 就業은 전적으로 불규칙하며 이들은 자유로이 이용할 있는 勞動力의 마르지 않는 貯水池를 資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태는 勞動者階級の 平均水準보다도 낮은데 바로 이점이 그들을 資本의 고유한 착취부문의 광대한 기초로 만들고 있다. 最大限의 勞動時間과 最小限의 賃金이 그 特徵을 이루고 있으며 家內勞動에서 그들의 추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過剩人口는 계속 大工業과 農業部門의 過剩勞動者로부터 보충되고 특히 수공업 경영이 매뉴팩처어경영에, 또 매뉴팩처어경영이 기계경영에 패배하여 몰락해가는 산업 부분으로부터도 계속 보충된다. 축적의 규모 및 그 힘과 더불어 ‘過剩化’가 진행됨에 따라 이 過剩人口의 규모가 확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過剩人口는 그 자신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하는 노동자계급의 한 요소를 이루며 이 요소는 노동자계급의 총증가에 여타의 요소들보다도 비교적 큰 역할을 한다……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법칙은……개체로서는 힘이 없어서 잘잡아 먹히는 動物類의 大量的再生産을 연상시킨다.(방점은 필자)” 59)

56) K.Marx, 앞의 책, pp. 726~727.

57) 위의 책, p. 727.

58) 「브레이버맨」은, 그의 勞作, 『勞動과 獨占資本』 17章에서 잠재적과잉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대적의미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資本主義的工業의 中心部와는 달리 農業部門에서는 農業技術의 革命에 의해 ‘解放’된 사람들의 反撥을 상쇄할 逆의 吸引運動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勞動의 移動은 農業地域에서 도시나 大都市로 이루어진다.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국에서 이 잠재적과잉인구의 풀(pool)은 대체로 흡수되었다. ……과잉인구의 잠재적형태는 현재 주로 新植民地에 존재하며, (이에대해) 資本主義國家는 資本蓄積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노동의 吸收와 排除를 統制하려고 한다. 이러한 勞動市場의 統制的 國際化는 ‘低開發地域’으로서 예측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의 저임금노동지역에 대한 각종 공업프로세스의 수출에 의해 보완된다.” (H.Braverman, Labor & Monopoly Capital-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20th Century, MRP, 1974, 이한주, 강남훈역, 「노동과 독점자본-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까치, 1987. p.331.

59) K. Marx, 앞의 책, p. 727.

이와같이 資本의 輕步兵으로서 不規則한 就業, 長時間勞動, 低賃金, 낮은 生活水準을 特徵的 指標로 갖는 正體적 과잉인구는 오늘날 工場이나 大企業의 外業部로서의 近代的家內工業이나 中小企業에 實質的賃勞動者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流動的過剩人口隊列에서 落層한 就業勞動者나 農村의 潛在的過剩人口풀에서 부터 흘러나온 대다수의 유입노동자들로 구성된다.

林直道는 이같은 停滯的過剩人口를 “ 現役勞動者軍과 産業豫備軍과의 기형적 統一物 ” 이라고 정식화한 바 있다.<sup>60)</sup>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現役勞動者라는 性格과 産業豫備軍이라는 성격의 混在로 인해, “ 勞動者階級の 내부에서 그 자신의 再生産을 永久化시켜나가는 ” 正體적 과잉인구의 산업예비군으로서의 고유한 성질이 부각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 現役勞動者軍의 形態를 가진 産業豫備軍 ” 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61)</sup>

한편 井村喜代子<sup>62)</sup>는, 停滯的過剩人口의 範疇設定問題와 관련하여 正體적 과잉인구란 “ 資本에 의해 배제되어진, 落後된 經營 노동양식 ’의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것 ” 으로 규정하면서 資本에 의해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正體적 과잉인구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독특하고도 배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우선 「마르크스」의 ‘ 家內勞動 ’ 이라는 概念을 ‘ 낙후된 經營·勞動樣式 ’ 과 무리하게 等置시키고 있으나 이는 近代的家內工業과 「마르크스」의 家內工業은 그 내용면에서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며,<sup>63)</sup> 「마르크스」가 “ 家內工業에서 그 主된 모습 ( Hauptgestalt ) 를 볼 수 있다 ” 라고 지적한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그 범주의 자의적인 축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井村의 견해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과소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은폐할 우려마저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더우기 井村과 같이 正體적 과잉인구의 범주를 家內勞動에 限定시킨다면 오늘날 國家獨占資本主義段階에서 나타나는 蓄積의 進行에 따른 賃勞動關係의 擴大, 雇傭勞動者의 增大, 農家數의 절대적 축소라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高木督夫<sup>64)</sup>는 井村流의 소극적 범주설정을 비판하면서 취업의 불안정성, 노동조건 열악성의 특징들과 표리관계에 있는 “ 低賃金의 問題와 豫備軍의 문제 ” 를 分離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高木은 熟練勞動市場과 單純勞動市場을 설정하고 勞動

60) 林直道, 「資本制蓄積と失業の理論」, 岸本英太郎編, 「資本主義と失業」1957, p.87.

61) 加藤佑治, 앞의 책, p.13.

62) 井村喜代子, 相對的過剩人口をめぐる若干の問題 — とくにその停滯的形態と中心として, 『講座現代賃金論』(2), 1968, 青本書店, 1968.

63) 津田美穂子, 「相對的過剩人口の存在形態について—井村喜代子氏の見解によせて」, 大阪市立大學『經濟學雜誌』1974. 3月號, p.84.

64) 高木督夫, 「日本資本主義と賃金問題」法定大學出版局, 1974.

市場에서 決定된 勞動價格 혹은 그것에 의해 규정되는 總括的勞動條件을 기준으로한 '標準的現役勞動者'를 상징하고 이 같은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勞動者는 모두 과잉인구 또는 產業豫備軍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65)</sup> 여기서 우리는 高木의 이같은 적극적인 概念幅의 擴大라는 분석방법에는 일단 수긍할 수 있겠으나 오늘날의 다양화되고 重疊된 勞動市場을 단지 '숙련·미숙련'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점과, 標準的現役勞動者라는 자의적인 概念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sup>66)</sup> 國家督占資本主義段階에 진입하게 되면 기계 대공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資本의 급속한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吸引되는 勞動力의 量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反撥되어지는 노동력도 累進的으로 增大하게 된다. 技術革新의 진전에 의해, 資本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산수단 체계에 맞는 노동력을 獨占, 확보하면서 동시에 技術革新에 對應해서 半熟練, 年少勞動力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노동시장에서 쫓겨나온 中·高年勞動者의 吸引은 점차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停滯的過剩人口는 累增되어 간다. 이같은 경향은 오늘날의 勞動市場의 分斷化 및 隔差構造의 창출, 農業의 地位低下에 의한 潛在的過剩人口의 감소, 流動的過剩人口의 정체적형태로의 전화, 국가주도하의 勞動力流動化 및 積極的勞動力政策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sup>67)</sup>

요컨대 社會的인 富, 현재 기능하고 있는 資本, 그것의 增大하는 규모와 힘,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적인 크기와 그 노동생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 과잉인구도 커진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자본의 팽창력을 발전시키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전한다. 그러므로 相對的過剩人口의 상대적 크기는 富의 힘과 더불어 증대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絕對的이고도 一般的인 法則인 것이다.<sup>68)</sup>

#### 4. 被救恤貧民 ( Pauperismus )

固定된 형태로서 相對的過剩人口의 가장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被救恤貧民層은 " 勞動者現役軍의 상이군인수용소, 產業豫備軍의 死重 ( tote Gewicht ) 을 이루고 있다. 被救恤貧民의 생산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필연성도 相對的過剩人口의 必然性에 포함되어 있으며 被救恤貧民은 상대적 과잉인구와 더불어 富의 資本主義的生產 및 發

65) 위의 책, p. 218.

66) 이에 대한 批判 및 反批判은 다음의 文獻을 參照하라. 田代洋一, 「書評: 高木樞夫, 『日本資本主義と貧金問題』」 吉田寬一, 「勞動市場の展開と農民層分解」, 季刊, 「農業總合研究」, 1975.4月號 및 加藤佑治, 앞의 책, pp. 11-17

67) 加藤佑治, 앞의 책, pp. 19-20.

68) K. Marx, 앞의 책, p. 728.

展의 하나의 존재조건을 이룬다. 이 貧民은 資本主義의生産의 空費 ( faux frais )에 속한다……결국 勞働者階級の 極貧層과 産業豫備軍이 많으면 많을수록 公式的 被救恤貧民도 점차 많아지게 된다.” 69)

浮浪者나 犯罪者, 賣春婦등 본래의 룬펜프롤레타리아트(Lumpenproletariat)를 별도로 치면 被救恤貧民層은 3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sup>70)</sup> 우선 제 1부류는 勞働能力을 가진 자들로서 恐慌期에는 일시적으로 팽창했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감소해간다. 일반적으로 停滯의 過剩人口의 경우 資本은 이를 항상적인 低賃金勞働力의 給源으로 이용하는 반면, 이 제 1부류에 속한 노동능력자의 경우는 好況期에만 吸收되어지므로 그외의 산업순환국면에서는 실사 勞働能力과 意思가 있더라도 자본에 의한 強制的怠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두번째 부류는 孤兒, 貧兒 등의 소위 “産業豫備軍의 候補”<sup>71)</sup>로서 경기회복시에는 일시적으로 자본에 의해 흡수되기도 한다.<sup>72)</sup> 세번째부류는 零落者나 勞働無能力者로서 국가의 生活保護가 없이는 지탱해 나가지 못하는 문자그대로의 産業豫備軍의 死重이다.<sup>73)</sup>

## 5. 相對的 過剩人口의 現代的存在形態

오늘날에 있어 상대적과잉인구는 『자본론』에서 規定한 바와 같은 古典的形態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의 상대적과잉인구론은 機械制大工業段階以後의 이른바 資本一般이 生成되는 資本主義的蓄積의 一般法則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現代國家獨占資本主義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요인은 資本의 構造變化이다. 資本一般은 獨占資本과 非獨占資本으로 분열되고 양자간의 平均利潤率은 극심한 隔差構造를 가지게 되었

69) 上同.

70) 上同.

71) 上同.

72) 加藤佑治는 위의 책, p.18에서 被救恤貧民을 “勞働能力은 물론 勞働意志도 없는 자들로서, 求職活動을 안하기 때문에 공식통계상에는 完全失業者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被救恤貧民이라도 제 1 및 2부류에 속한 자들은 비록 저급한상태이나마 노동력은 물론 노동의지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73) 1988년 10월 경제기획원발표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소득이 낮아 生活保護對象者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絶對貧困人口의 比率은 전체인구의 5.5%로서 무려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지난 70년의 23.4%, 80년의 9.8%에 비해 그 比率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엄청난 數字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1988년 10월 12일자(경남판))



으며, 獨立家內工業은 점차 大企業의 外業部로 吸收되어 간다. 한편 國家主導下的 勞動力 流動化政策은 獨占資本蓄積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sup>74)</sup>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적지않은 부분은 이미 現役勞働者軍에 편입되어 노동시장내부에서 형성된 賃金, 勤勞條件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고용형태상의 격차구조에 있어 하위부문에 위치지워지며 여기서 각종의 不安定就業勞働者層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 불안정취업노동자<sup>75)</sup>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①獨占企業의 社會的 生産過程의 基幹工程에 까지 도입되어 사실상의 '大企業勞働者'가 된 社外工이나 파견노동자 ②獨占企業傘下의 下請 小·零細企業의 노동자 ③파트타임 (part time) 노동자나 日雇, 臨時雇 및 家內勞働者 ④獨立生産者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은 賃勞働者化하고 있는 名目的 自營業者 ⑤獨占資本의 社會的 生産過程과는 직접적관련이 없는 제3차산업이나 영세기업의 저임금노동자들의 집단을 그 대표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sup>76)</sup>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의 勞働市場隔差構造의 下部에 존재하는 不安定 就業勞働者層을 相對的過剩人口로 해석하는 이유는 우선 現代資本主義下에서 相對的過剩人口가 現役勞働者軍化 한다면 치더라도 이는 本來的意味의 安定的인 現役勞働者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의 不安定性을 그대로 지닌채로 勞働者隊列에 서게되는 것이므로 이를 여전히 상대적 과잉인구의 개념틀로써 이해함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sup>77)</sup>

불안정취업 노동자층을 相對的過剩人口의 범주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선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不安定就業勞働者는 일반적으로 現役勞働者軍 內部에 편성되며 근래에 들어오에 따라

74) 美崎浩, 앞의 책, p.50.

75) 不安定就業勞働者라는 概念은, 江口英一 (1966)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학자들의 論爭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서, 오늘날 상대적과잉인구의 중요한 현대적 존재형태를 대변해 주는 有用한 概念이다. 이 글에서는 不安定就業勞働者의 주요한 속성으로서

①취업이 불규칙·불안정하고 ②임금 및 소득수준이 지극히 낮으며 ③장시간노동과 높은 노동강도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勞働組合등의 조직력이 매우 약할뿐 아니라 ④충분한 사회복지의 혜택도 못받는 부류의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물론 이 같은 概念設定에 대해서, 氏原正治郎은 “오늘날 불안정하지 않은 취업자는 과연 어디있겠는가? 본래 自由로운 勞働者란 모두 不安定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기概念의 수용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면 常時工(本工), 臨時工, 社外工등의 구분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직업안정성면에서의 실제의 차이를 은폐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江口英一, 「都市における被保護者層の研究」,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調査報告 第七輯, 1966, p.5. 및 江口英一, 「雇傭不安の累積とその日本的性格」, 「經濟」1975.11, p.44., 氏原正治郎, 「本工, 臨時工, 社外工」『社會科學研究』第10卷6號, 1959.3, pp.5-8., 加藤佑治, 앞의 책, pp.30-47 참조.)

76) 永山利和, 伍賀一道, 앞의 책, p.176.

77) 위의 책, pp.146-147.

그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生産過程이나 流通過程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기간부서에 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古典에 있어서의 相對的過剩人口의 本質規定이나, 形態規定의 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데는 적지않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不安定就業勞動層 內部에서 특히 증대경향을 보이고 있는 社外工이나 下請中小企業勞動者, 「파트-타임」노동자들의 경우, 이들은 독점자본의 生産過程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事實上的 常備勞動者로 편입되고 있으며 특히 不況에 따른 常備勞動者의 삭감수단으로서 大企業의 基幹工程에까지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 이들 不安定就業勞動者의 대부분은 本來의 現役勞動者軍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된 상태를 유지,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독점자본의 축적욕구에 필수불가결한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을 무조건 「마르크스」가 서술하고 있는 “相對的으로 資本의 平均的增殖欲求를 上廻하는 過剩인 勞動者 人口”라는 고전적형태의 相對的過剩人口의 本質規定에 그대로 끼워 맞춘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것이다. 不安定就業勞動者에 대한 종래 논의의 대부분은 『자본론』에 있어서 相對的過剩人口의 本質規定과 現代的 存在形態間에는 論理次元에서 차이가 있음을 받아들이며, 이를 상대적과잉인구중 停滯的形態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왔는데<sup>78)</sup> 그 이유는 停滯的過剩人口는 상대적과잉인구이면서 동시에 現役勞動者軍의 일원이며 또한 ‘현역노동자의 형태를 가진 産業豫備軍’이라고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sup>79)</sup> 그러나 大本一訓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정제적과잉인구는 資本競爭에서 敗北하여 衰退一路에 있는 産業 및 近代的大工業에 의해 밀려난 小規模生産이나 기타 不安定한 寄生的産業등의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또한 이같은 산업분야에서는 劣惡한 勞動條件이나 經營條件을 유지함에 의해 大企業이나 獨占資本으로부터 배제된 과잉자본이 점차 停滯的資本蓄積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sup>80)</sup>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불안정취업노동자를 일괄하여 停滯的過剩人口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不安定就業勞動者 중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獨占企業의 基幹部署에 까지 편입된 사실상의 독점기업노동자가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비록 本來의 現役勞動者軍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 과잉인구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不安定한 상태 그대로 獨占資本의 蓄積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論議를 종합해 보건대 이같은 不安定就業勞動者는 단순히 경제적과잉인구로서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相對的過剩人口의 새로운 存在形態’로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sup>81)</sup>

78) 위의 책, p.147.

79) 津田美穂子, 앞의 論文, 1974.3. 및 水谷謙治, 「相對的過剩人口의 考究」, 立教大學 『經濟學研究』 第32卷3號, 1978, 永山利和, 伍賀一道, 앞의 책, p.176에서 재인용.

80) 大木一訓, 『雇傭・失業의 經濟分析』大月書店, 1979, p.50. 위의 책, p.148에서 재인용.

81) 永山利和, 伍賀一道, 위의 책, pp.148-149.

## IV. 要約 및 結論

이제까지 살펴본 상대적과잉인구의 생성원리와 그 존재형태에 관한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픈하이머」流의 「마르크스」비판은 상대적과잉인구론이 입각하고 있는 장기추세적 분석의 특징을 간과함에서 비롯된다.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더불어 가변자본의 양적 확대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항상 실현될 수는 없다. 실사 누진적 자본축적이 가능한 국면에서라도, 이같은 현상자체는 또한 生産力向上 및 有機的構成의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됨을 주목해야 하며 또 누진적 자본제 생산 고유의 산업순환 및 기타 경제사회적 제약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산업순환과정에서 反撥된 勞動力과 吸引된 勞動力間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전자가 후자보다 적더라도 상대적과잉인구는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勞動力이 賣買되어지는 것은 特定の 具體的有用勞動의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有機的構成의 고도화과정에서 技術的構成의 諸變化에 대응하여 不必要한 노동력은 뱉어내어지고 必要한 노동력은 빨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노동력상품은 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 즉 資本構成의 高度化에 의해 반발된 노동력이 속하는 시장과 資本總量의 증대에 의해 새롭게 吸引된 노동력시장은 각기 쉼개의 시장이다. 따라서 勞動市場에서 일단 뿔겨져 나온 노동력이 다시금 吸引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며 설령 吸引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과거보다 훨씬 저급한 單純勞動市場으로 전락하기가 쉬운 것이다.

3) 국가주도하의 積極的勞動力政策은 여러가지형태로 존재하는 상대적과잉인구를 資本의 增殖欲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人間材料로 變化시키는 일종의 産業豫備軍創出政策이다. 요컨대 오늘날에 있어 機械制大工業의 本性은 舊熟練을 해체하고 單純勞動分野를 확대하는 것에 의해 '勞動의 轉換, 機能의 流動, 勞動者의 全面的可動性'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4) 대부분의 流動的過剩人口의 경우 同一勞動力이 同一勞動市場을 流出入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즉 流出되는 노동자는 舊熟練의 解體나 老朽로 인해 反撥되는 것이며 이들은 보통 정체적과잉인구의 대열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보다 높은등급에서 낮은등급으로 下降하게 된다. 결국 이들을 대신하여 새롭게 기존의 생산부문에 吸引되는 노동력의 주류는 反撥된 勞動力이 아니라 젊고 싱싱한 新規勞動力이 되는 것이다.

5) 潛在的過剩人口의 범주설정문제와 관련하여 資本에 의한 勞動의 직접적포섭, 즉 농

업에 있어서 資本主義的經營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배경에서 相對的過剩人口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의 小農勞動力을 論外로 방출해서는 안되며 상품시장, 노동시장 및 資本蓄積政策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에 의한 농민노동의 간접적포섭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一部上層農을 제외한 모든 中·小農民層을 潛在的過剩人口로 해석하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6) 停滯的過剩人口에 대하여, 이를 井村喜代子와 같이 자본에 의해 배제되어진 落後된 경영노동양식의 분야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資本에 의해 直接雇傭된 勞動者를 停滯的過剩人口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井村流의 制限的 概念을 가지고 國家獨占資本主義 段階에서 나타나는, 蓄積의 進行에 따른 賃勞動關係의 확대, 雇傭勞動者의 증대, 農家數의 절대적감소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 경제적형태의 과잉인구는 상대적과잉인구의 중심적 존재형태가 되었으며, 家內工業 종사자는 물론 零細企業의 임금노동자 혹은 大企業에 고용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常傭勞動者에 비해서 임금이나 勞動條件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등 여러가지 다양한 존재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7) 대부분의 종래의 논의와 같이 현대의 不安定就業勞動者들 一括하여 停滯的過剩人口로 규정하는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不安定就業者중에는 獨占企業의 基幹部署에까지 편입된 사실상의 독점기업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은 비록 本來의 現役勞動者軍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과잉인구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不安定한 상태 그대로 獨占資本蓄積의 必須不可缺한 存在가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不安定就業勞動者를 모두 경제적과잉인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형태의 상대적과잉인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相對的過剩人口問題를 다룰 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個別資本의 最大限의 利潤追求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제 생산하에서 끊임없는 生産力向上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품 한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절약, 즉 支拂部分의 節約이지 勞動者 1人當 勞動의 輕減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生産力의 向上은 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를 수반하며 또한 자본량의 증가에 의해 可變資本總量의 유지가 지속되는 限, 生産力의 向上은 就業勞動者의 일부를 구축하면서 취업기회를 박탈한다. 이같이 生産力向上과 관련된 資本制的特性은 노동력의 재편성이나 교체, 취업노동자의 과도노동 등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야말로 상대적과잉인구론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sup>82)</sup> 또한 자본주의경제하의 資本蓄積은 産業循環이라는 형태로 진전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勞働者들의 就業이나 勞動條件도 역시 産業循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生産力의 向上과 더불어는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가 勞働者狀態에 미치는 영향도 그 자체로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産業循環에 의해 크게 규정받게 되는 것이다.<sup>83)</sup>

그러나 이 글에서는 産業循環에 따른 勞働者狀態에 대해 미처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sup>84)</sup> 이는 本論文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계임과 동시에 필자의 향후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

82) 井村喜代子, 앞의 책, p.328.

83) 위의 책, p.327, 박종수, 앞의 論文, p.147에서 재인용.

84) 이에 대해서는 1987년에 필자가 '한국의 경기순환과 상대적과잉인구'라는 주제로 부분적인 접근이나마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상대적과잉인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비판적분석이 결여된 채 그것의 量的推計 및 變動分析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국면의 구분기준도, 정치경제학 분석틀을 도입하지 못한채, 2차자료에서 나타난 경기순환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이원적인 내용의 강세적접합'이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대로 修正陳述할 것을 약속한다.